

- 주요 뉴스: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금리인상 지속 필요
 -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, 전월비 상승. 경기 반등 기대 증가
 - 영란은행 부총재, 추가적인 금리인상 지지. 다만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검토
 - 중국 국무원,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인하할 방침. 경기둔화 우려 등을 반영
- 국제금융시장: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. 유럽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이 영향

유럽 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약세[-0.2%], 독일 금리 하락[-8bp]

 - 주가: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
유로 Stoxx600지수는 화학관련주 강세 등으로 0.5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완화 가능성 등으로 3개월래 최저치
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.1%, 0.7% 상승
 - 금리: 미국 채권시장은 추수감사절로 휴장
독일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 등을 반영하여 2개월래 최저 수준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27.0원, -1.2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1/24일	11/23일	전일대비			11/24일	11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휴장	4,027.3	-	국제 금리 10y	미국	휴장	3.69%	-
	유럽	440.84	438.82	0.46%		독일	1.85%	1.93%	-8bp
	중국	3,089.3	3,096.9	-0.25%		영국	3.04%	3.01%	3bp
	일본	28,383	28,116	0.95%		CDS 5y	한국	52bp	52bp
	한국	2,441.3	2,418.0	0.96%	위험 지표	중국	75bp	77bp	-2bp
	달러지수	105.86	106.08	-0.20%		EMBI+	-	404	-
환율	유로화	1.0412	1.0397	0.14%		VIX	휴장	20.35	-
	엔화	138.63	139.60	0.70%		WTI유	77.96	77.94	0.03%
	위안화	7.1520	7.1605	0.12%	원자재	구리	363.0	361.8	0.33%
	원화	1,328.2	1,351.8	1.78%		금	1,755.2	1,749.7	0.3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금리인상 지속 필요

- 이번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,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 피력. 한편 9조유로 규모에 이르는 대차대조표의 축소도 의제로 선택
-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(2%)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고, 일부에서는 금리가 중립수준에 이른 후에도 당분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.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.50%p 인상을 예상
- 한편 슈나벨 이사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혀 매파적 입장을 고수. 데 쿤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가 가까우며, 내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U 에너지장관회의,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결정 보류. 12월에 합의 재추진

-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은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, 일일 가격 변동성 제한, 신재생 에너지 촉진 관련 합의를 추진. 다만 최근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가스 가격 상한제 관련 여러 국가에서 비판이 확산

■ 독일 중앙은행, 금융시스템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

- 금융시스템은 경기둔화, 금리인상,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. 다만 단기적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

■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, 전월비 상승. 경기 반등 기대 증가

- 11월 Ifo 기업환경지수는 86.3을 기록하여 전월(84.5) 및 예상치(85.0) 상회. 이는 에너지 위기 우려 감소,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에 기인. 경제 붕괴의 두려움이 통상적인 경기침체 우려로 전환(LBBW bank)
- 한편 정부는 일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최대 90%의 횡재세 부과를 계획.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소비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전망

■ 영란은행 부총재, 추가적인 금리인상 지지. 다만 상황에 따라 금리인하 검토

- 램스덴 부총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발언. 그러나 경제가 예상과 다른 성장 경로를 나타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멈춘다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

■ 스웨덴 중앙은행, 정책금리 0.75%p 인상.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추가 인상 가능

- 정책금리를 0.75%p 올려 '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2.50%로 결정했으며,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.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피력

■ 튀르키예 중앙은행, 1.5%p 금리인하 단행. 경기회복 지원을 강조

- 정책금리를 1.5%p 낮춰 9.0%로 결정.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경제회복을 위해 한자리수의 금리가 필요하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

■ 중국, 코로나 19 감염자 수 사상 최대. 당국은 봉쇄 수준을 강화

- 11/23일 신규 감염자 수는 31,444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상회. 베이징에서 부분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부지역 선양도 봉쇄 조치를 시작. 당국에서는 봉쇄 수위가 다소 낮은 정밀방역을 사실상 포기하고 전면 봉쇄로 회귀

■ 중국 국무원,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인하할 방침. 경기둔화 우려 등을 반영

- 주요 언론에 따르면, 국무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및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에서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. 특히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

■ 일본 정부의 경기 판단,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,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계는 지속

- 정부는 11월 월간 보고서에서 최근 설비투자 및 가계소비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.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25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데 퀴도스 부총재 강연,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금리수준과 경제여건 고려 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합리적 - WSI

(The Fed Has Good Reasons to Slow Rate Increases)

- 현재 연방기금금리가 4%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이 5.00%~5.25% 내외일 것으로 추정.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0.75%p 인상은 어려울 소지
- 또한 정책금리 변동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.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둔화는 긴축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. 이에 연준은 물가하락 효과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
- 한편 근원 PCE 물가의 연간상승률은 5.1%에 이르고 최근 하락 압력도 제한적. 다만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이 또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측

■ ECB의 양적긴축 지연, 금융분절화 위험 등을 반영 - The Economist

(Why Europe is scared of quantitative tightening)

- ECB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역내 개별 국가들의 채권시장 상황도 고려하고 있어 양적긴축 시행의 어려움이 가중. 특히 양적긴축은 독일과 주변국과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
- 채권가격 하락도 문제. 이미 ECB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발생하고 있는 담보 가치 감소의 문제가 양적긴축으로 더욱 증폭될 수 있기 때문. 양적긴축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한다면 채권자들도 추가적인 담보물 마련이 필요
- 일부에서는 양적긴축으로 독일 단기 국채 공급이 늘면 '안전한 담보물' 부족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. 그러나 이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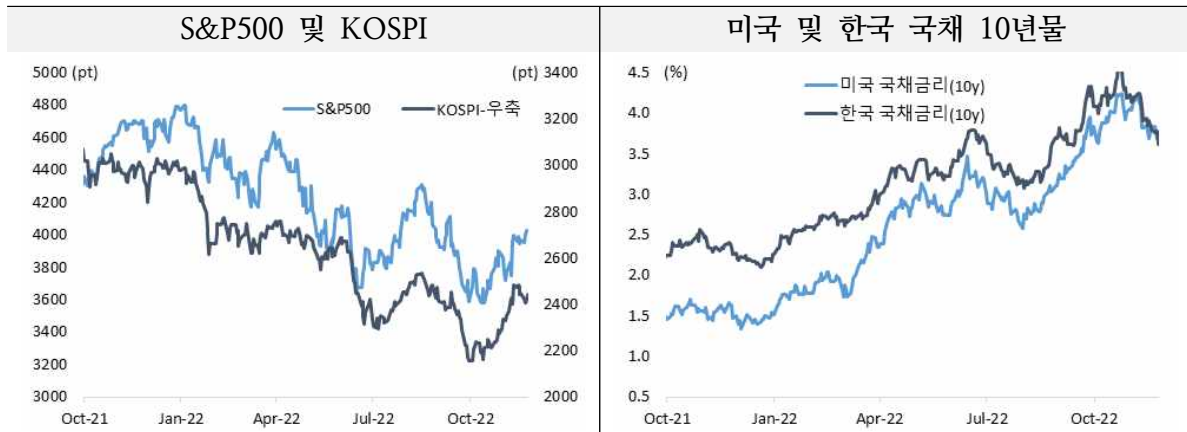
■ 신흥국 주가, 미국 대비 상대적 강세로 전환 예상 - 블룸버그

(Emerging Markets Decouple From US Stocks Signaling Regime Change)

- 신흥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미국 대비 상대적 약세를 지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▲미국 달러화 고점 통과 인식 ▲신흥국-미국 간 성장률 격차 확대('22년 1.3%p → '23년 3.6%p) ▲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심화(지난 15년 평균 26% → 최근 36%) 등이 신흥국 주가 강세를 지지
- 최근 MSCI 신흥국 지수와 S&P500 지수 간 상관관계도 역(-)의 관계로 전환. 미국 주식시장이 부진을 겪더라도 신흥국 주가는 양호한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

- **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,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을 자극 - Financial Times**
(The cost of America's ban on Chinese chips)
 - 오늘날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 제한은 기술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며, 실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, 자율주행, 데이터센터 등 여타 첨단 산업에까지 심대하고 광범위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
 - 문제는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전세계에 공급되던 중국산 반도체의 생산이 감소하는 한편, 한국·대만·미국 등 경쟁국의 가격협상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점
 -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등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산업 전반으로의 비용 상승 여파는 불가피. 아울러 공급망 불안도 자주 나타날게 될 전망
- **미국의 인플레이션, 공급망 충격 완화 및 상품수요 감소 등으로 둔화 예상 - WSJ**
(Stuffed Stockings, Suffering Stores)
- **영국 경제, 성장둔화 해결 위해 EU와의 교역 확대가 필요 - Financial Times**
(Britain needs to improve its Brexit deal)
- **중국 국채가격 하락, 인플레이션 우려 및 완화적 통화정책 종료 가능성에 기인 - 블룸버그**
(China Bond Rally Fades as PBOC Easing Cycle Seen Nearing an End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